

## 고령화에 가난... 전남도민 팍팍한 삶

도, 22개 시군 9536가구 2015년 생활실태 들여다보니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 고령  
 절반은 월 생활비 50만원 미만

전남도민이 100명이라면...

- 30명 월 가구소득 100만원!
- 20명 빚내서 생활
- 60명 스포츠·레저활동 無
- 70~80명 공연·전시회 안가
- 49명 부부 대화 하루 1시간!
- 18명 담배 피우고
- 54명 월 한차례 이상 음주
- 18명 나홀로 거주
- 48명 전남도민에 자부심

전남도민 10명 중 3명은 월 가구소득이 100만원 미만이었으며, 70세 이상 고령자 가운데 절반 가까이 50만원 미만의 돈으로 한 달을 꾸려나갔다. 식료품비, 주거비, 보건의료비, 교육비 등에 허덕이면서 10명 중 5명 가까이 100만원 미만을 소비했다. 10명 중 2명을 빚을 내 살고 있는 셈이다. 300만원 이상을 쓴 주민은 10명 중 1명에 불과했다. <관련기사 2면>

10명 중 6명 이상이 1년간 한 차례도 스포츠·레저 활동에 참여하지 않았다. 7명이 넘는 주민은 공연을, 8명이 넘는 주민은 전시회를 1년에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다. 10명 중 6명은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으며, 2015년 평균 4권의 책을 읽었다. 도민의 절반이 2개 정도의 SNS에 가입했다.

전남도가 22개 시·군 9536가구를 표본으로 해 직접 방문 면접하는 형태로 지난해 8월 24일부터 9월 4일까지 12일간 벌인 사회조사를 결과를 5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표본 가운데 47.8%가 도민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보통이 42.5%였으며, 부정적인 응답은 9.8%였다. 자부심이 있다는 도민의 비율이 전년(35.0%)에 비해 크게 높아졌다.

삶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26.6%가 10점 만점에 5점을, 20.2%가 7점, 18.2%가 8점을 줬다. 평균 6.5점으로, 지난 2012년 7.0점을 기록한 뒤 3년째 같은 수준이다.

노령화지수(65세이상 인구/0~14세 인구×100)가 165에 달해 전국 평균(94.1)의 2배에 육박했다.

응답자의 82.4%가 가족과 함께 살고 있었으며, 17.6%는 직장, 학교, 자녀 교육 등으로 따로 지내고 있다. 49.3%가 하루 부부간 대화 시간이 1시간 미만, 63.7%가 부모 자녀 간 대화 시간이 1시간 미만이었다.

이상적인 자녀 수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47.2%가 2명, 24.1%가 3명을 선택해

평균 이상 자녀 수는 2.7명으로 분석됐다. 저출산 문제의 해법으로 응답자의 42.9%가 영유아 보육교육비 지원 확대, 13.7%가 임신 출산 지원 확대 등을 제시했다.

월 평균 소득이 100만~199만원인 응답자가 19.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200만~299만원(19.4%), 50만~99만원(16.7%), 50만원 미만(15.8%), 300만~399만원(13.8%)로 그 뒤를 이었다. 700만원 이상 소득자는 2.6%로 조사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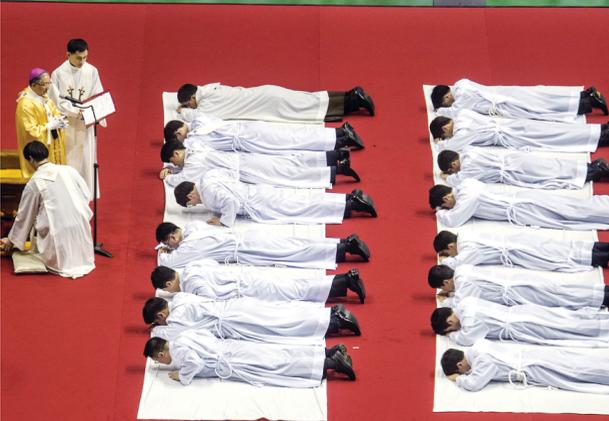
부담되는 생활비는 식료품비가 28.8%로 가장 높았고, 이어 보건의료비(17.9%), 주거비(13.4%), 교육비(12.9%) 등의 순이었다. 생필품은 대형 슈퍼마켓(38.4%)에서 가장 많이 구입했다. 대형 마트(22.3%), 집 근처 슈퍼마켓·편의점(21.1%), 전통시장(14.6%) 등은 그 다음이었다.

17.6%가 담배를 피우고 있으며, 53.6%는 월 한 차례 이상 술을 마셨다. 거의 매일 음주하는 응답자도 7.1%나 됐다.

이번 전남도 사회조사는 모두 11개 부문 40개 항목으로 실시됐으며, 표준화 시·군을 2014년 2개에서 2015년에는 여수, 순천, 광양, 담양, 곡성, 보성, 해남 등 7개로 늘려 신뢰도를 높였다.

전남도는 이번 조사결과를 실·과·소 및 시·군, 산하기관 등 정책 기초자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유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천주교 광주대교구 사제·부제 16명 탄생 5일 광주시 서구 영주체육관에서 2016 천주교 광주대교구 사제·부제 서품식이 열리고 있다. 김희중 대주교 주례로 열린 이날 서품식에선 부제 6명이 사제로, 교구신학생(8명)·수도회 신학생(2명) 10명이 부제로 서품됐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탈당파’ 교섭단체 가능할까

주승용 13일 더민주 탈당...박지원 “탈당 굳혀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의 탈당 도미노 현상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달 중순 탈당파 의원들의 교섭단체 구성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3면>

또한, 현역 국회의원 탈당과 함께 지방의원들과 당원들의 탈당도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5일 더민주 주승용 의원은 광주일보와의 통화에서 “오는 13일 탈당에 나설 것”이라며 “그동안 의정보고 등을 통해 지역 민심을 청취한 결과, 90% 이상이 탈당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오는 15일 이전에 더민주 탈당 의원들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박지원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탈당)의마음을 사실상 굳혀가고 있다”면서도 탈당 시기에 대해서는 “마지막까지 총선 승리를 위한 길을 찾아야 한다”며 말을 아꼈다.

박 의원은 6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탈당 정국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전남지역 더민주 국회의원들의 탈당은 선거구 확정 이후에나 탈당에 나서지 않는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김영록, 이윤석, 이계호 의원 등 전남지역 의원들이 박지원 의원과 함께 이달 중순 이후에나 탈당에 나서지 않는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광주의 박해자·장병환 의원의 탈당을 놓고 마지막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다음 주 주말을 전후해 탈당에 나설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박해자 의원은 “지역 민심을 살피고 있다. 하지만 탈당 사태가 호남을 고립

시키는 결과를 낳아서는 안 된다”며 “이제 수도권 의원들이 야권 재편 정국에 응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한길 전 대표의 탈당에 따라 최원식, 노웅래 의원 등 수도권 의원들의 결단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다음 주 수도권 일부 의원들의 탈당이 현실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정대철 고문이 이번 주 내에 탈당하고 권노갑 고문 등 동고동계 인사들의 탈당도 다음 주 내에 가시화될 전망이다. 광주 현역 의원들의 잇따른 더민주 탈당 행렬에 지방의원, 당원들도 가세하고 있다.

더민주 광주 광산갑 지역위원회 당직자와 당원 1000여 명은 5일 오후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더불어민주당을 떠나 정권교체의 길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광산갑은 선도적으로 탈당해 안철수 의원의 신당 합류를 선언한 김동철 의원의 지역구다.

광산갑, 임내현 의원 지역구인 북구를, 권은희 의원의 지역구인 광산구를 일부 시의원이 5명이 1차로 6일 탈당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광주시의회의원은 모두 21명으로 전정배 의원을 따라 탈당한 김영남 의원을 제외한 20명이 더민주 소속이었다. 국회의원들의 탈당 행렬에 지방의원들도 동참하면서 지방의회 지형도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

정진욱 광주시 남구 출마예정자도 6일 국회 정문관에서 더불어민주당 탈당 기자회견을 열고 안철수 신당 합류를 선언하는 등 내년 총선 출마예정자 일부도 조만간 탈당 선언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광주 제2순환도로 7월부터 하이패스 운영

1구간 소태엔 설치 불투명

오는 7월부터 광주 제2순환도로에 하이패스가 도입돼 운영된다. 광주시 외곽을 순환하는 제2순환도로(총연장 37.66km)가 2007년 개통한 지 9년만에 하이패스가 도입되는 셈이다.

광주시는 최근 2순환도로 3-1구간(송암, 4구간(유덕)을 운영하는 광주순환도로투자(주), 교원공제조합 등과 7월 1일 하이패스 개통을 주 내용으로 하는 협약을 했다고 5일 밝혔다.

하이패스 구축비 72억원은 광주시가, 운영비 95억원엔 업체 측이 부담한다. 다만 광주시와 재정지원금 관련 소송을 진행중인 광주순환도로투자(주)의 1구간(소태)은 설치 여부가 불투명해 반쪽짜리 하이패스가 될 우려가 크다.

하이패스는 영업소 상·하행 각각 2개 차로에 설치하고 나머지 현금징수 구간에도 교통카드 기능을 추가해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062)605-1114

신당 주자 인터뷰 - 박주선 ▶5면  
 LP판 1만장 모은 DJ 박태진 ▶16면  
 사람이 문화자산-목포 이만영 ▶18면

희망 2016

# 광주새우리병원

2015년 1월 현재 2011, 2015년 2회 연속 지정!!

보건복지부 지정 **광주 유일**  
**척추전문병원**

지정기간: 2015.01.01 - 2017.12.31

**광주 화정동 농성역 4번출구 대표전화 062)603-8000**

의료광고심의필 제150202-중-67895호

www.saewoori.com since 2002